

■ 광주시장-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무슨얘기 오갔나

“문화산업 육성위해 문화수도 특별법 개정을”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당선자)들이 아시아 문화수도 조성...

광주시는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8명을 초청...

이날 간담회는 18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상견례 성격이 짙었지만...

◇구간 경계조정 = 동구의 박주선 당선자는 “구간 경계조정 문제가 수차례 논의됐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반면 북구의 강기정 의원은 “구간 경계조정을 인구·경제 통계를 바탕으로 복구·동구간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이에 박광태 시장은 “필요성은 있지만 지역간 이해가 엇갈려 시 주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 의원들은 문화수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앞다퉀 제시했다.

◇지하철 2·3호선 건설, 백운고가 철거 = 이음섭(광산) 당선자는 “오는 2019년이면 유동인구가 100만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외에 박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1~2년 늦추더라도 인구변화 등을 감안, 전면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백운고가 철거는 2호선 선형이 결정되면 곧바로 착수할 것”



광주시는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8명을 초청, 첫 간담회를 갖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광태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區간 경계 조정, 지역간 이해 맞물려 당선자간 시각차

朴시장 “음식·민속타운 포함 100만평 관광단지 조성”

원을 투자하는 첨단노인의료복합단지...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올 하반기 입지 선정에 앞서 유치단을 구성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박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1~2년 늦추더라도 인구변화 등을 감안, 전면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백운고가 철거는 2호선 선형이 결정되면 곧바로 착수할 것”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 강운태 당선자는 “혁신도시에 한전 본사뿐 아니라 2만여명에 이르는 협력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박 시장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 “음식종합타운과 민속타운을 결합 100만평 규모의 관광단지 조성을 구상 중”이라며 “이를 어등산관광단지 및 영산강 개발, J프로젝트와 연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곳 중 영광군수 후보로 정기호 영광기독병원장을 공천했다.

이외에 박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1~2년 늦추더라도 인구변화 등을 감안, 전면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백운고가 철거는 2호선 선형이 결정되면 곧바로 착수할 것”

민주 당권경쟁 “약점을 보완하라”

丁 ‘지방 민심잡기’ 분주 秋 ‘의원 대면접촉’ 늘려

통합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향해 뛰고 있는 정세균 의원과 추미애 당선자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보 조정에 나섰다.

그동안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기반 다지기에 주력해온 정 의원은 금주 말부터 당원 접촉에 나설 예정이고 당원들을 중심으로 바다 표심을 다져온 추 당선자는 금주중 전국 투어를 일단락짓고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며 본격적으로 여의도 공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정 의원과 의원 확보에서 뒤지고 있는 추 당선자가 각각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금주중 대표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본격적인 지역 순회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쇄고기 재협상 등 현안 처리가 시급한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는

대로 전국 각지를 훑으며 당원들과의 직접 접촉을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특히 ‘검증된 능력과 리더십’을 앞세워 대세론 전파를 시도하기로 했다. 한 측근은 “그동안 중진 원로와 후배의원들과 두루 만나 의견을 들으면서 ‘왜 정세균이어야 하는냐’에 대한 비전과 메시지를 마련했다”며 “이르면 금주 말부터 지방투어를 시작해 바람표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당선자는 금주중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일단락짓고 의원들과의 대면 접촉을 늘려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16일에는 목포에서 박지원 당선자와 단독으로 면담을 가진 데 이어 지난 주말 광주지역에서 머물면서 일부 의원들과 만나 대표경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바다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체감했다”며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넓혀나가면서 과거 독선적이었던 부분을 해소하면 의원들 사이의 지지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원내대표 경선 오락가락 ‘눈살’

27일→23일→다시 27일로

원내대표 경선일을 둘러싼 통합민주당의 혼선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당초 27일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던 경선 날짜가 내부논란 끝에 지난주말 23일로 앞당겨지는 듯 하더니 금주 들어서 다시 27일로 되돌아갔다.

경선일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택일’ 조차 끝까지 확정되지 못한 채 막판까지 우왕좌왕한 분위기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일찌감치 22일로 원내대표 경선일을 잡고 경선구도를 압축해나가고 있는 흐름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달 초 잡아놓은 경선날짜는 27일,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18대 당선자 위

크스의 말미에 투표를 실시하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워크숍이 당 진로와 정국 운영방향을 논의하자는 본래 취지를 잃은 채 자칫 ‘원내대표 경선 유예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내부의 지적이 대두되면서 논의의 기류는 바뀌었다.

23일론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22일 여당이 새 원내사령탑을 뽑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현안인 원구형 성립에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23일 경선을 치르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명분상으로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논란 끝에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충조)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23일 경선을 실시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으고 19일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한나라 원내대표 홍준표 정책위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체제로 사실상 확정됐다. 원내대표 경선출마 의지를 피력했던 4선의 정의화(부산 중동구) 의원은 19일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당의 화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

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경선을 통해 선출될 예정이었던 한나라당 차기 원내지도부는 경선 대신 전남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동반출마를 공식 선언한 4선의 홍준표(서울 동대문), 3선의 임태희(경기 성남분당) 의원 체제로 합의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6·4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6·4 재보선 오늘부터 후보등록

민주, 광주 남구 시의원 후보 김선문씨 공천

후보자 등록은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3일 간이다.

선관위는 26일까지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30일까지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

는 유권자는 20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고 추후 우편으로 배달된 부재자용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관할 선관위에 우편 송부하면 된다.

이번 재·보선은 영광군, 서울 강동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등 기초단체장 9곳, 광주시 남구 1선거구 등 광역의원 29곳, 광주시 남구 가 선거구, 광양 다 선거구 등 기초의원 14곳 등 모두 5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한편, 민주당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곳 중 영광군수 후보로 정기호 영광기독병원장을 공천했다. 또 광주시 남구 시의원 후보로는 김만근 전 의원의 여론조사 경선 포기과 안원균 전 의원의 경선 불참에 따라 김선문 전 남구의회 의원을 공천했다.

이외에 광주시 남구 기초의원 후보로는 남광인 전 남구의회 의원, 광양시 기초의원 후보는 박봉욱 전 광양시청 세정과장 등을 최종 결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ony Bravia TV and HDR-SR12 camera. Includes text like '고객감사 大 축제' and 'HDR-SR12'.

Advertisement for Goldrake membership benefits. Lists various membership tiers like Goldrake 30C, Goldrake 30R, Goldrake 30S, Goldrake 30T, Goldrake 30U, Goldrake 30V, Goldrake 30W, Goldrake 30X, Goldrake 30Y, Goldrake 30Z.